

佛法 다시 흥할 그날은...



진공대사 부도(보물 제365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뒤에 세워져 있다.

성하(盛夏)의 들녘을 헤집고 다니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약 초간 마냥 풀밭을 뛰며 영험 있는 것들을 찾다가 보면 엉겁퀴 꽃잎이 손등에 묻기도 하고, 풀벌레 소리가 발끝에 발하기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강산 낙화유수인가. 옛 절터에 핀 농소화 꽃들은 주인이 없어도 웅단장을 하고, 돌담 밑 풀벌레들은 함부로 허물을 벗으며 이 땅에 오롯이 사는 법을 사자상승(師資相承)하고 있다. 오라기락하는 장마비 속에 태어난 하안거(夏安居)에 들었다가 해설피우는 휘파람새 소리에 황망히 해제를 하고 개망초꽃 핀 섬강기슭을 달린다.



홍법사터 전경. 아직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지 대부분이 민간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석탑(보물 제464호)이 쓸쓸히 주인없는 폐사지를 지키고 있다.

행사지를 찾아서

장지연의
잊혀진가람 탐험

원주 지명면 홍법사터



밭갈음이 공장 설강 지락으로 내달는 것은 이마도 이 일대에 아직 이름조차 거명 못하는 무수한 절터들이 널려 있고 그 무너진 자리마다 활파라 농소화 고목이 범둥인양 심지를 동우기 때문일 것이다. 예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절 집 마당에는 으레 농소화 나무 한 두 그루씩을 가꿨으니, 농소화나무는 부귀와 존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원주 땅 3대 폐사지 중의 하나로 아직 발굴의 실마리가 닿지 못한 홍법사 터로 가는 길은 문막, 간현(杆峴) 협곡을 지나 농소화 꽃잎이 폭죽 치고 달맞이꽃과 개망초꽃들이 디리부터 진을 치고 손님맞이로 부산을 떠는 그 길을 지나야 한다. 설강의 맑은 물과 기암절벽, 울창한 수림으로 원주 제일의 절경을 자랑하는 간현 국민관광단지에서 영봉산(靈峰山) 자락을 향해 4km 정도를 걸어 서면 고즈넉한 정감이 넘치는 양지바른 언덕이 있다. 이름하여 안창 마을, 선조의 장인으로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의민공 김제남(金捷男, 1562-1613)의 고향이기도 한

그 마을이다. 홍법사지는 폐사된 뒤 숙종 19년(1683)에 도천서원이 세워졌다가 고종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사라졌으며, 간단치 않은 마을의 내력을 말해주는 듯 동리 곳곳에는 어찌 큰 느티나무 한 두 그루씩을 가꿨으니, 농소화나무는 부귀와 존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진공대사 부도탑비의 귀부.

무와 밑동 굵은 대추나무들이 눈에 띈다. 누대에 불법이 흥왕하라고 고려 태조 왕건이 제국을 열며 진공(眞空, 869-940) 왕사를 모셨던 홍법사. 그러나 법은 흥하지 못하고 옛 영화를 밑거름 삼아 1만여평 절터에는 고추대공만이 주저리 주저리 머물러 가고 있다. 홍법사지는 일제시대 무렵 우리 문화재

에 눈독을 들이던 일인들의 발걸음이 빈번했으나, 석탑 근처에 있던 철불(鐵佛)이 없어지고 진공대사 부도탑도 경복궁으로 옮겨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멀어지게 되었다. 원주시는 1984년 5월 홍법사지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하고, 부른 법천사지, 정산리 거둔사지와 함께 3대 폐사지로 지정, 복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드넓은 사지 가운데 삼층석탑 1기(보물 제464호)와 진공대사부도탑비의 귀

년에 돌아와 고려태조의 왕사가 된 것으로 전하나, 현장의 문화 계서판에는 진공대사가 855년에 출생하여 937년에 입적한 신라 말 선승으로 양양 진전사에서 수도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고려 태조가 그의 설법에 감동, 가까이 머물기를 청했으나 사양하여 소백산 수도암으로 갔다고 기술되어 있다. 역사를 살피는 세심한 주의력이 보자란다기 보다는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탓이라 여겨진다.

고려초 진공王師 주석한 선종 가람 원주 3대 폐사지중 하나...발굴 아직 손뚱대

부와 이수(보물 제163호)가 남아있는 주변만을 정비하여 안내문과 철책을 둘러놓았다. 법천사지 보다 민가가 적고 농토가 많아 상대적으로 발굴작업이 쉬울 것 같으나 안창마을의 터가 선 빗인지 쉽게 범접을 못하는 느낌이다. 진공대사에 관한 안내문도 역사적 자료와는 사뭇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답사객들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는 진공대사 법호는 총담(總潭)이며, 신라 계림의 귀족 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하고 918

다, 달고 깨어진 채 그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진 진공대사 부도비의 비신만큼이나 금강이 현대받은 역사의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진공대사의 미묘한 행정만큼이나 홍법사지에는 또 한가지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국보 제104호인 원공국사(7-844) 열거화상탑이 이곳에 있다. 1914년 발굴공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 역시 일제시대 일본인의 기술에 의한 것으로 분명치가 않아 열거화상탑 명에는 '전 홍법사 열거화상탑'이라고, 홍법사가 언제 창건되고 멸실되었는 가



홍법사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심재옥 씨 집 안마당에 놓여있는 장대석과 석물들.

'전(傳)'이라는 수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열거화상은 양양 진전사 도의 선사의 법맥을 이은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의 제2대 조사이니, 열거화상탑이 실제로 이곳에 있었다면 홍법사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불교 변혁의 산실이었던 설악산 진전사와 연관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홍법사가 언제 창건되고 멸실되었는 가

는 알 수 없으나 진공대사 부도비문으로 미루어 통일신라 말기의 사찰로 추정되며,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초기까지 법등을 밝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법사지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고려 태조와 진공대사의 각별한 운우지정(雲雨之情)이다. 진공대사가 대담 유학승이었던, 아니면 양양 진전사에서 무사(無師) 득도한 선승이던 그는 곧 태조의 왕사였으며, 그 사실만큼은 녹슨 문화계 사편의 내용이든 면지 달린 역사의 기록이든 일치하는 것이다.

태조는 이 곳 홍법사를 중건하여 진공대사를 머물게 한 후 극진한 예우를 다하였다. 그로부터 홍법사는 홍법선원으로 불리고, 전국에서 선 수행을 위해 수많은 운수 남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고려 태조는 진공왕사가 열반하자 그 비문을 몸소 지었고, 비문 뒤에는 또 진공대사가 태조에게 올린 글을 새겼으니 태조와 진공국사의 도타운 인연은 천년의 풍상이 스쳐간 뒤에도 탐비를 장엄한 운봉(雲籠)으로 남아 함께 삼계의 시공을 노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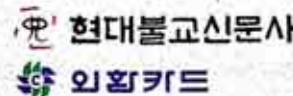
중문지 안쪽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이 머문 자라는 철책을 둘러쳐도 개망초 꽃 군단이 들어가 진을 치고 있다. 석축, 문지 초석들은 무표정한 석탑보다는 여의주물 입에 문 귀부가 그래도 의지할만 했던지 슬그머니 돌 거북 뒤로 가 웅색하게 자리를 비집고 누웠다. 활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법당자리는 대웅전 대신 지금은 숲을 활짝 이는 폐가 한 채가 무슨 보물인 듯 녹슨 경운기 한 대만을 보듬고 있다. 폐가는 예맥, 강아지를, 숙부쟁이들이 엉켜 한창 풍화로 다비 중이다.

폐가 위쪽에는 재빨리 가세가 변해 보이는 민가 한채가 더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심재옥(60세)씨이며, 사지의 대부분이 그의 소유라고 한다. 그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심재옥씨 집 안마당에는 장대석과 석물들이 볼모로 잡혀온 듯이 모로 누운채 곱찍을 못하고 있다. 부석기를 지러는 마땅히 부지런한 농부의 소유일 것이나 만고에 불변인 불법이여 어찌 범부의 소유일 수 있겠는가.

절터 주인인 심재옥씨를 공양하느라 얼굴에 주름살이 밧이랑 보다 길어진 그의 아낙의 팔로는 석탑 서쪽 100m 지점에는 속칭 '중삼'이라 불리는 절터 3개가 있는데 그 둘레가 사지를 가로질러 마을의 농지를 적신다고 한다. 또 진공대사탑이 있었다는 북쪽 산기슭은 잡석들만 수북한데 지금은 담배밭 흔적이 되어 있으니 진공대사의 자비는 입멸 뒤에도 세세생생 중생들의 심전(心田)을 온탁하게 하는가 보다.

수행 환경은 지켜져야 한다고 북한산 터널 일부 구간의 관공공사를 중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던 날인 7월 16일, 한강 상류의 한 자락인 원주시 설강 어귀 영봉산 홍법사지 길목에는 늙은 농소화나무 한 그루가 또 한송이 황금빛 꽃잎을 천천히 펼치고 있었다.

<서인·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홍천 물결리절터 편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직통) 02-725-1132
대표) 02-737-8881

